

## 딤스데일을 위한 변명: 『주홍글자』 다시 읽기

김철수(조선대)

### I. 들어가는 말

너새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의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 1850)는 17세기 중반 보스턴(Boston)에서 일어난 한 목사와 기혼녀 사이의 간통 사건을 중심으로 엄격한 청교도 사회의 종교적 규율과 개인적 의식 사이의 갈등을 다룬 일종의 “역사적 로맨스”(Ruland & Bradbury 144)로 알려져 있다.

『주홍글자』에 붙게 된 두 개의 수식어 중, “역사적”이라는 용어는 이 작품이 1640년대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정착지를 배경으로 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삼고 있으며, 호손이 이 작품의 배경을 설정 하는데 있어서 실제의 인물과 장소 그리고 사건들에 상당히 의존했다는 것을 밝힌 찰스 리스캠프(Charles Ryskamp)의 논문이 그 근거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Ryskamp 19-33) 또한 “로맨스”라는 용어는 호손 자신이 이 작품의 서문 격인 「세관」(*The Custom-House*)이라는 단편에서 제시한 로맨스(Romance)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작품의 배경과 제작 과정을 밝힌 이 서문에서 호손은 소위 ‘소설’과 ‘로맨스’라는 장르를 구분하고, 자신은 로맨스를 선호한다고 밝히게 된다. 소설은 낮 시간에 환하게 비치는 햇살처럼 “인간 경험의 일상적인 과정에 대한 세밀한 충실도를 추구하는” 장르라면, 로맨스는 밤 시간의 흐릿한 분위기 속에서 비치는 달빛이나 석탄 난로의 불빛처럼 “경이로움”이나 “상상력”을 가미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흐릿한 거울과도 같은 그러한 예술적 장치들은 혼란스러운 실제 사실에 형식적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감춰진 진실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Gerber 7) 이러한 호손의 로맨스론은 외형적 세계에 대한 충실한 묘사를 중시하던 영국과 유럽의 사실주의적 작품들과 차별되는 순수한 미국 소설의 출발점이자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정되고 있다.

리처드 체이스(Richard Chase)는 『미국소설과 그 전통』이라는 저서에서 “미국 소설의 역사는 사실주의의 발흥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로맨스의 용도에 대한 반복된 재발견의 역사”이며 이러한 “사실주의와 로맨스의 혼합의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xii) 그런가 하면 내쉬 스미스(Nash Smith)는 호손의 로맨스라는 소설의 양식이 “물리적이며 사회적인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소위 인간의 마음의 진실(the truth of the human heart)을 전달한다” (21)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로맨스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코울(A. N. Kaul)은 “『주홍글자』와 청교도 윤리 (*The Scarlet Letter and Puritan Ethics*)”라는 논문에서 “『주홍글자』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작품이 17세기 뉴잉글랜드에 대한 작품이지 그때 기록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 (9)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

의 저작 배경에 대하여 뮐랜드와 브래드베리 (Ruland & Bradbury)는 이 작품이 “과거 청교도 시대의 뉴잉글랜드와 초월주의 세대의 뉴잉글랜드를 구분해주는 역사적, 종교적, 문학적 그리고 감정적 거리와, 과거의 ‘철의 세계’에서 호손의 가장 두드러진 허구적 인물인 헤스터 프린 (Hester Prynne)이 구현하고 있는 자유와 사색의 세계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세심한 측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45)

요컨대, 사실주의와 로맨스 사이의 장르적 간극과 17세기와 19세기라는 시대적 간극, 그리고 전지적 시점과 관찰자의 시점 등 다양한 서술태도를 지니고 있는 작가의 독특한 문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전반적으로 난해하고 모호한 작가로 알려져” (김지원 137) 있는 호손의 『주홍글자』는 “가장 자주 재판되는 미국 소설 중의 하나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 (박경운 443)하면서 현대의 다양한 이론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문제적인 작품이다.

죄와 회개라는 종교적 주제로부터 죄의 결과로서의 소외와 병리현상 및 정서적 삶의 왜곡,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과 사회 또는 자유의지와 운명의 대립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이 작품은 이민 초기 미국 청교도 사회의 과도한 율법주의와 그에 당당히 맞서는 용감한 개인으로서의 헤스터 프린, 그 사회의 지도자적인 인물로서 자신의 죄를 경건의 가면 속에 감추고 지내다가 파멸을 맞고 마는 비겁한 목사인 아서 뎀스테일 (Arthur Dimmesdale),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며 신의 영역을 침범하다가 역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로저 칠링워스 (Roger Chillingworth)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자신에게 ‘주홍글자’라는 수치의 표징을 영원히 달게 하고 마침내는 공동체로부터 쫓아내 버렸던 엄격한 종교적 규율이라는 고전주의적 질서를 낭만적인 기질로 당당하게 극복하고서 그 수치를 자랑으로 변모시켰다고 알려진 헤스터와는 달리, 비겁하고 유약하며 가련하기 그지없는 위선자로 평가되고 있는 뎀스테일 목사의 언행과 사고 및 독백 등을 재독함으로써, 그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적인 타락’의 운명 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견인’함으로써 마침내 자신을 구원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했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sup>1)</sup>

## II. 변명의 근거: 소설 『주홍글자』의 모호성

소설 『주홍글자』는 “호손 자신과 자신의 고향인 세일럼 (Salem), 그리고 그의 청교도 조상들에 대한 애증의 관계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서 애매하고 복잡하기로 유명한” (Donohue 36) 작품이다. 이러한 그의 작품의 모호성은 청교도주의의 엄격한 고전주의적 보수성이 초월주의 (Transcendentalism) 이라는 낭만주의적 성격의 사조에 의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청교도적 전통의 계승자이자 가장 적극적인 비판자” (Kaul 9)로서의 호손 자신의 개인적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7세기 초 뉴잉글랜드의 정착민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는데, 먼저 1620년경에 플리머스

1) 뎀스테일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긍정적 평가들에 대해서는 천연희의 논문 “감각적 동정심”으로 『주홍글자』의 뎀스테일 다시 보기” 『영어영문학 연구』, 제 39권 제 2호, 2013 여름호, pp. 101-103 참조.

(plymouth)에 도착한 소위 ‘필그림들 (Pilgrims)’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개종하기 보다는 그러한 세상과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순수한 삶을 살려는 소박한 농부들이었고, 그로부터 십 년 뒤에 이주해 온 ‘청교도들 (Puritans)’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따라서 미지의 신대륙에서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가슴 부풀어 있었던 훨씬 더 적극적인 신교도들이었다. (최웅, 김봉중 p. 43)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정정치를 추구했던 그들은 인간은 타고난 죄인이라는 ‘원죄설’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등의 칼빈주의 (Calvinism) 신앙을 신봉하고 준수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엄격한 교조주의적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낭만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초절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이성과 논리보다는 정서와 주관적 믿음을 중시했으며 사회보다는 개인을 우위에 두었다. 개인의 자유와 자연에 주의를 기울인 영국의 낭만주의와는 달리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초절주의는 그 속에 내재된 청교도주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수정된 청교주의 (modified puritanism)”라고 불리기도 했다. (Horton & Edwards 117)

죄보다 사람을 더 미워했던 것으로 인식되는 청교도주의라는 과거의 배경과, 호손 자신이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무시하는 “천박한 낙천주의” (박병주 61)로 여기긴 했으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위 초절주의라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사조의 한 가운데에서 있게 된 작가 호손은 “중립지대 (neutral territory)” (SL 28)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서사기법이라 할 수 있는 “로맨스”라는 장르를 개척하여 현재와 과거 그리고 실재와 환상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그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탐색하고 비판하게 되었고, 그러한 요소들이 이 작품의 모호함을 극대화시켜 끊임없는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호손은 『주홍글자』의 서문이라고 밝힌 「세관」이라는 단편에서 자신의 고향인 세일럼 (Salem)을 배경으로 한 청교도 선조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세관의 역사와 그곳에 근무했던 시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상세히 전한다. 그 소개문의 전반부에서 그는 이 단편의 기록 목적이 『주홍글자』라는 작품의 소재가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 경위와 그 이야기의 “신빙성 (authenticity)”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2)</sup>

그의 로맨스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이 단편의 후반부에서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주홍글자와 조너선 퓨(Jonathan Pue)라는 세관원이 작성한 헤스터 프린(Hester Prynne)에 관한 문서를 발견하여 읽어본 후 환상 속에서 그 문서의 작성자가 찾아와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도록 재촉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로 무디어진 소설가로서의 재질에 대한 염려를 하던 서술자는 환한 대낮에 작품을 구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집에 돌아온 후 “밤늦게 빛이라고는 오직 석탄 불과 달빛밖에 없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상상적인 장면들을 그려 내려고 애쓰”(SL 27)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낮익은 방 안에서 용단 위에 그토록 하얗게 떨어져 온갖 무늬를 그렇게 뚜렷이 보여주는 달빛이야말로, 모든 사물을 세부에 이르게까지 자세히 보여주면서도 아침이나 오후에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달빛이야말로, 로맨스 작가들

2)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An authoritative Text, Essays in Criticism, and Scholarship*, third edition, ed. Seymour Gross, et al.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88. 이후 인용은 본 텍스트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SL이라고 표기하고 페이지 수만 기록함.

이 그들의 환상적인 손님들과 알게 되는 데 가장 적합한 매체가 될 것이다. 그럴 때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실의 보잘것없는 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는 의자들이며, 한가운데 반질고리가 얹혀 있는 탁자며, 책 한두 권과 불을 끈 램프며, 소파며, 책장이며, 벽에 걸린 그림, 그토록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이런 물건 하나하나가 보통 때와는 다른 빛 때문에 너무나 영적인 것이 되어 실제적인 물질성을 잃어버리고 지적인 것으로 바뀌는 듯하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그 때문에 위엄을 갖추지 않는 것은 없다.(27-28)

즉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흐릿한 달빛을 받아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은 “현실 세계와 꿈나라 사이 어딘가에 있는 중립지대” (SL 28)에서 가능한 일인데, 바로 그것이 호손이 소설이라는 장르와 차별하여 강조하는 로맨스의 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맨스의 ‘혼종성’은 작품의 모호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병주는 “『주홍글자』에 나타난 서술방식”이라는 논문에서 화자와 등장인물 그리고 주홍글자의 양면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모호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sup>3)</sup> 요컨대 화자는 전지적이면서 적극적인 태도와 최종 판단을 유보하는 소극적인 태도의 혼용이나 모순된 서술 양상을 통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지속적으로 의미의 결정을 방해” (71)하고 있고, 각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도 고정된 성격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닌 양면적인 태도에 주목하여, “등장인물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보다는 존재론적 접근”(74)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 화자와 등장인물들에 의해서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주홍글자 ‘A’에 대해서도 악의 근원으로서의 공적인 이미지와 자긍심과 저항의 의미로서의 사적인 이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또한 간간히 삽입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에 대한 등장인물들과 서술자의 모호한 해석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믿음이나 확신을 거절하고 독자 스스로가 의미를 생성해 나가도록 유도”(77)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학문 연구자로서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작품 속의 수많은 모호성의 요소들이 사실은 초절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던 호손이 인본주의적 낭만주의의 영향 하에서 지속적으로 희석되어가는 미국의 건국정신으로서의 ‘신본주의’의 회복에 대한 작가의 소망을 감추기 위한 베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다.

요컨대 간통의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후에도 개인이 베푼 수많은 선행으로 인하여 ‘간통녀’에서 ‘능력자’와 ‘천사’로 일컬어지는 헤스터 프린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조주의적 억압을 전복한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죄를 짓고서도 개인적인 성격과 청교도 개혁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공적인 임무 등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공개하고 회개하지 못한 목사 뎀스테일은 작품 내외적으로 수많은 비난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작가 호손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헤스터와는 달리, 뎀스테일에 대해서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 분 앞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다양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 정해진 때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남으로써 그동안 얽혀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기도 하다.

3) 박병주, 「『주홍글자』에 나타난 서술방식」, 호손과 미국소설학회, 『호손과 미국소설연구』 11권 1호, 2004, pp. 57-81 참조.

### III. 타락한 영웅, 아서 덤스테일

물론 덤스테일 목사는 타락한 죄인이다. 그는 율법으로서의 성경을 강조한 엄격한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정정치(theocracy)” (Horton & Edwards 37)를 꿈꾸던 뉴잉글랜드에서 그 율법을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개인적인 욕망에 굴복하여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욕망의 열매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사실을 숨기고 들통 나게 될까 염려하면서도, 회중들 앞에서는 오히려 감동적인 설교로 자신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데 열중하는 철저한 이중생활에 빠진 위선자로 평가 받고 있기도 하다.

작품 속의 서술자는 갑작스런 건강의 이상으로 눈에 띄게 쇠약해 진 덤스테일 목사와 그를 치료해 달라는 성도들의 부탁을 받고 접근하게 된 칠링워스라는 의사가 우연히 함께 살게 된 집을 묘사하면서 목사의 죄가 성경에 나온 다윗 왕의 죄와 유사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 두 친구가 새로 함께 살게 된 집은 명문가 출신의 경건한 과부덕으로, 뒷날 신성한 킹스채플의 건물이 서게 되는 근처 일대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집이었다. 한쪽 편에는 본디 아이작 존슨의 소유지였던 묘지가 있어 목사와 의사 모두에게 진지한 사색을 북돋아주기에 알맞은 환경인데다가 저마다의 직업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과부는 어머니 같은 자상한 마음씨에서 덤스테일 목사에게 현관 쪽 방을 사용하게 했는데, 이 방은 양 지바른 편이었지만 창문에 목격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필요할 때에는 대낮에도 그들이 지게 할 수 있었다. 벽에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예언자 나단에 관한 성경 이야기가 그려진, 고블랭 직조기에서 짠 벽걸이용 융단이 쪽 드리워져 있다. 그런데 아직 색이 바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의 여인은 재앙을 예고하는 예언자와 거의 마찬가지로 으스스한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었다.(SL 87)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 있는 방들 중에서 덤스테일이 사용하기로 한 방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은 이 작품의 중심 사건인 덤스테일과 헤스터의 불륜에 대한 작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선 그림 속의 다윗(David) 왕은 영국 최초의 왕의 이름을 가진 아서 덤스테일 목사를 연상하게 하고, 으스스한 모습으로 재앙을 예고하는 나단(Nathan) 선지자는 역시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작가 자신이거나 혹은 칠링워스를 상징하며 또한 으스스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유혹자인 밧세바(Bathsheba)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그림의 성경적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다윗이 은밀히 범한 죄에 대하여 백주에 응징하겠으며, 죄를 고백하였으므로 죽이지 않겠으나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sup>4)</sup>하는데, 작품에서는 죄의 고백을 오랜 시간 동안 지연시킨 덤스테일이 대낮에 설교를 마친 후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게 되지만 대신 작품 속의 아이인 펄(Pear)은 오히려 친부의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고 외국에 가서 살게 된다. 이러한 설정의 변화는 “19 세기의 호손과 17세기의 청교도 사이의 미적거리”(Donohue 42)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삼하 12: 12-14)

에드워드 데이빗슨(Edward H. Davidson)은 “딤스데일의 타락(Dimmesdale’s Fall)”이라는 논문에서 타락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82)이라고 전제한 후, 바로 그 타락이 딤스데일 목사에게 일어났다고 주장한다.(82) 그는 딤스데일이 “자신의 죄를 탐험할 때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삼인칭으로 지칭한다”(83)는 사실에 주목하고 딤스데일이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이 그의 타락의 첫 단계라고서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딤스데일이 자신의 육체에는 온갖 처벌을 가하고 설교단에서는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때 이때의 고백은 지적, 영적 실체가 없는 “무의미한 육신의 호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84)

딤스데일의 자신의 육체에 대한 무시무시한 저주는 외형적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가시적인 신호이며, 계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육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양면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신호이다. 매질은 그에게 단지 육체만이 아담의 원죄의 혐오를 짊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시킬 뿐이다. 육체만이 그 저주의 숨겨진 표시들을 보여준다. 그러는 동안에 영혼은, 그 목사가 그것이 그의 짝의 불명예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된다.(86)

데이빗슨은 이렇게 넓어진 딤스데일의 육체와 영혼의 거리를 통해 두 가지의 타락의 의미를 읽어낸다. 하나는 죄 지은 육신에 대한 참혹할 정도의 고문과 징벌을 통해서 찾아오는 맑은 영혼으로의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청교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분리를 자신과 자신의 주변과의 관계에 적용시켜 “자신을 가장 친근한 사람들로 분리”(91)시킴으로써 “일상적인 염려의 세계에 복종했다가 그것을 초월하는”(91) 낭만적 예술가로서의 타락의 의미이다.

요컨대 딤스데일의 타락에 대한 데이빗슨의 논리는 17세기의 청교도적 관점에서의 신앙적 타락에 대한 19세기 낭만주의적 관점에서의 해석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자 했던 딤스데일의 일종의 ‘영적 오만’을 “신념의 첫 단계로 의심을 택한 사람들”(86)이 가졌던 “회의론적 궁지(skeptical predicament)”(86)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딤스데일의 타락은 또한 그 타락의 결과로 찾아오게 될 수치와 공포로 인하여 그를 자신의 실제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켰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죄책감이 타자의 고통과 죄의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진정한 형제애를 갖게 하는 동인이 됨으로써 “그 자체로 절망이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천연희 110)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으로 절망하면서도 그것을 감동적인 설교로 승화시켜 회중들에게 전하는 딤스데일의 모습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쳤나니”(롬 5:20)라는 바울의 설교를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은 작품 내외의 다양한 증거들이 주장하듯이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딤스데일의 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작품 속에 나타난 그의 신분과 그의 타락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그에게 ‘타락한 영웅’이라는 별칭을 붙여주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과연 그와 같은 그의 타락이 ‘유약하고 비겁한 위선자’라는 평가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본문에 나타난 딤스데일의 생각과 언어 및 행동에 대한 서술을 추적하여 그의 불명예에 대한 성경적 재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V. 타락한 영웅을 위한 변명

헤스터 프린이 처형대 위에서 죄의 열매인 딸을 품에 안고 때로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SL 41)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여자로서 버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몸을 가누고 꿋꿋이”(SL 42) 선 채로 수치를 당하는 동안 그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두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본다. 그 중 한 사람은 “기형적으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조금 치켜 올라가 있는”(SL 43) 그녀의 남편 로저 칠링워스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연인인 아서 뎀스테일 목사이다.

이 두 남자들 중 남편인 칠링워스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보이자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손가락을 쳐들어 허공에 손짓을 보낸 뒤 입술에 갖다”(SL 44)대며 자신을 아는 체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렇지만 두 번째 남자인 뎀스테일은 처형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떨리면서도 달콤하고 낭랑하면서도 그윽한”(SL 49) 목소리로 자신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목사가 말하는 직접적인 내용보다도 그 말이 풍기는 감정이 군중의 심금을 울려 마침내 청중을 똑같은 동정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다. 심지어 헤스터의 품 안에 안긴 갓난아이마저 똑같은 힘에 감동을 받은 듯했다. 지금껏 멍하던 눈을 뎀스테일 목사 쪽으로 돌리면서 두 팔을 쳐들고 기쁜 듯 슬픈 듯 조그만 목소리로 뭐라고 웅얼거렸기 때문이다. 목사의 호소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헤스터 프린이 함께 죄를 지은 사내의 이름을 밝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내 자신이 지위가 높건 낮건 가리지 않고 어쩔 수 없는 내적인 힘에 이끌려 스스로 처형대 위에 올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SL 49)

여기서 뎀스테일은 죄인인 자신을 “삼인칭”(Davidson 83)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어쩌면 용기가 없어 스스로 그 술잔을 들지 못하는”(SL 48-49) 심약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물론 그는 인품과 학식과 신앙 면에 있어서 이미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훌륭한 학자이자 목사였고 설교가였지만, 이 시기에 이미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심신이 미약해져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었다.

타고난 재주와 학자다운 교양이 풍부하면서도 이 젊은 목사의 몸가짐에는 어딘지 모르게 한 표정이 불안스럽고 놀라고 조금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 감돌고 있어 마치 인생 항로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자기 혼자서만 있을 수 있는 곳에서나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사람 같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임무가 허락하는 한 그늘진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순박하고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마음을 유지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신선함과 그윽한 향기와 이슬처럼 해맑은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의 말로 그들을 감동시켰다. (SL 48)

자신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보다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즉 최후의 심판대를 결혼의 제단으로 만들어 “둘이 함께 영원토록 징벌을 받게 될 것”(SL 56)이라고 생각할 만큼 간절히 사랑하는 남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헤스터의 단호함도 그만큼 그녀를 사랑하는 뎀스테일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그건 너무 깊이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떼어 버릴 수가 없지요. 바라건대, 저 자신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그분의 괴로움까지도 제가 짊어지고 싶어요!” (SL 49)

아마도 에덴동산의 원죄의 과정처럼 이 신대륙이라는 새로운 에덴에서 벌어진 죄의 사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이브로부터 출발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은 선고문에서 정한 처벌의 시간이 지나고 그 수치스러운 지역을 떠나도 상관없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스터가 “치욕의 상징 구실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지방을 오직 이 지방만을 구태여 자기 고향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스럽게 보인다”(SL 56)라고 의아해 하고 있는 서술자의 발언과 “바로 이곳에 자신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살고 있고, 또한 이곳에 그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SL 56)고 생각하는 헤스터의 의식의 흐름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처벌의 기간이 끝난 후 자신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주홍글자라 할 수 있는 딸과 함께,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생계를 잇고, 또 때로는 그 재능을 통하여 작은 선행을 베풀며 자신만의 속죄의 방법을 통해 살아가는 헤스터에게 딤스데일은 “헤스터의 괴로움을 절반만이라도 나누어 갖겠다는 듯 잠시 그녀를 위로해 주는 듯”(60)한 표정을 보이게 되고, 헤스터는 다시 살아나는 연정에 괴로워하게 된다. 이러한 헤스터의 죄책감에 대하여 서술자는 “헤스터 프린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자신의 연약한 실수와 인간의 가혹한 법률의 제물이 된 가련한 여인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SL 61)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제 7장 “총독 저택의 홀”에서는 작품의 말미에서 딤스데일의 공개적인 고백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흘려주기 전까지 “악마의 자식이며 불륜의 징표이자 악의 씨앗”(SL 65)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엄마의 가슴에 달린 주홍글자에 꽃을 던지며 “어미의 가슴을 상처로 뒤덮이게”(SL 69)하던 아이였던 딸을 죄인이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떼어놓아 “수수하게 옷을 입히고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이의 현재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하는 길”(76)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공론에 대하여 헤스터가 강력하게 반발한다.

이 때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헤스터를 위해 딤스데일은 어미와 딸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는 매개체임을 강조하며 두 사람을 격리시키지 말 것을 역시 강력한 어조로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는 훈련을 받게 되고, 이 아이는 순간순간 어미에게 지난날의 타락을 새삼스럽게 생각나게 해 줄 뿐 아니라, 마치 창조주의 신성한 서약이라도 한 것처럼, 만약 어미가 자식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면 그 자식 역시 양친을 천국으로 모셔 가리라고 어미한테 가르쳐 주게 되겠지요. 이런 점으로 미뤄 보아 죄 지은 어미가 죄지은 아비보다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헤스터 프린을 위해서나 그 못지않게 가엾은 어린아이를 위해서나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신 대로 두 모녀를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지요!”(SL 79)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딤스데일의 태도는 이유야 어찌 되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혈연의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해진 것임을 공표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관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판단에 따라 나름대로의 자기 구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헤스터와는 달리 딤스데일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그분의 섭리를 따르며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숲속에서 헤스터를 만나게 된 딘스테일은 하나님 앞에서 곤고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만 헤스터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자신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나같이 타락한 영혼이 남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소? 더럽혀진 영혼이 그들의 영혼을 정화 시키는데 말이오? 그들은 나를 존경한다지만 차라리 비웃고 미워해 줬으면 좋겠소! 헤스터, 강단에 서 있는 내 얼굴에서 마치 천국의 빛이 뿜어 나오는 듯 올려다보고 있는 그 많은 눈길과 마주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위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소! 진리에 굶주린 양떼가 마치 오순절의 혀가 말하기라도 하듯 내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내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겉으로 보는 내 모습과 진정한 내 모습이 그렇게 다른 것을 보고 비통하고 괴로운 마음에 절로 웃음이 나오곤 했어요! 사탄도 그것을 보고 비웃겠지!”(SL 130)

이처럼 “선행에 의한 구원을 거부”(Donohue 39)하는 딘스테일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갈 1:10)고 했던 바울의 편지를 연상시킬 만큼 하나님 중심인 반면, 자신들의 불륜 행위에 “나름대로의 신성함”(SL 133)을 부여하며 당시의 감정을 다그치는 헤스터의 모습은 거의 이단에 가깝다.

사실 이 숲속의 장면은 “200년 전의 일을 전해주는 객관적인 서술자로서의 호손과 등장인물의 행동을 도덕적으로(혹은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청교도로서의 호손 사이의 먼 거리 차”(Donohue 42)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작품 초반부에서 엄격한 청교도주의를 비판하고 그 교리에 희생당한 헤스터의 낭만적 반동을 칭송하던 서술자는 이 지점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죄에 연약한 인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게 되는데, 도노휴는 “객관성에서 엄격한 칼빈주의적 판단으로 옮겨가는 방식이 이 소설의 가장 훌륭한 예술적 성취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Donohue 43)

헤스터가 애초에 숲을 찾아 온 목적은 그녀의 연인에게 로저 칠링워스의 진면목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다시 무기력해져서 헤어날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는 그에게 그녀는 칠링워스의 눈을 피해 함께 구대륙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용기와 생동감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좁던가요?” 헤스터가 그윽한 눈길로 목사를 바라보며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그녀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몸을 꼳꼳이 가눌 힘도 없는 목사의 정신력에 자석 같은 힘을 불어넣었다. “우주라는 건 저기 저 마을의 범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 마을도 얼마 전까지는 나뭇잎이 흩어져 있던 쓸쓸한 황야로 이곳과 다름없이 적막한 곳이었지요. 저 숲 속 길은 어디로 통하는 길이지요? 개척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당신은 말씀하시겠지요! 옳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앞으로 계속 뻗어 있어요! 점점 깊숙이 점점 더 황야로 접어들 테니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차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서 다시 몇 마일만 더 가면 누르스름한 낙엽 위에 백인의 발자국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여행을 하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비참한 신세로 지내던 세계에서 벗어나 여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세계로 가실 수가 있다고요! 이 넓디넓은 숲 속에 로저 칠링워스의 시선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속을 감출만한 그늘이 없겠어요?”(134)

콜은 이 장면에 대하여 헤스터가 자신이 “고통스럽게 획득한 통찰력과 자유를 통해서 그녀의 연인을 이성과 내생에 대한 병적인 우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에게 회개를 향한 진정한 길을 보여주는데 성공한다”(Kaul 17)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녀는 비록 미약한 심신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칠링워스라는 악한과의 힘겨운 싸움을 버티고 돌아온 뎀스테일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안겨줌으로써 그를 두 번째로 유혹하는 이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녀의 계획이 주는 도전은, 그의 일시적인 쾌활함이나 자유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를 파괴시키게”(Kaul 19) 되기 때문이다.

숲속에서의 만남이 있기 전 뎀스테일은 칠링워스와 자기 자신 그리고 심지어 자연의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들과의 힘겨운 영적 전쟁을 치러왔다. 그의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은 병약해진 자신의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기로 했다가 목사의 비밀을 눈치 챈 후 그를 파멸시키기에 혈안이 된 악마로 변모해버린 칠링워스였다.

요컨대 아서 뎀스테일 목사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남달리 신성한 여러 인물들처럼 악마 자신이나 로저 칠링워스의 허울을 쓴 악마의 앞잡이한테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악마의 앞잡이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잠깐 동안 목사와 친밀한 사이가 되어 그의 영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 것인지 의심할 여지없이 뻔하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철석같은 믿음을 갖고 목사가 기필코 거두고야 말싸움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여 새로운 모습을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그러면서도 목사가 승리를 향해 싸워 나갈 때 겪어야 할 뼈저린 고통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다.

아아, 가엾은 목사의 두 눈 깊숙이 어려 있는 침울함과 공포의 빛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싸움은 치열한 것이며, 그 승산 또한 결코 장담할 수 없었다.(88-89)

마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읊을 시험한 사탄처럼 칠링워스는 집요하게 뎀스테일의 아픈 심장을 들쭉시키고 이 싸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불길한 예측으로 독자를 불안하게 한다.

고백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화에서 뎀스테일은 타고난 성격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한 채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고뇌를 스스로 맛보면서 최악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빗대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91) 이에 대하여 칠링워스는 그러한 행위가 “자신을 속이는 것”(91)이라고 비난하며, 의사로서 목사의 영혼의 상처나 괴로움에 접근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칠링워스의 계략에 대한 뎀스테일의 반응은 단호하다.

“천만에요! 의사 선생님에게는 안돼요! 속세의 의사에게는 절대 안 될 말이지요!” 뎀스테일 목사는 눈에 이글 이글 타오르는 빛을 띠며 어딘지 모르게 매서운 눈초리로 칠링워스 노인을 쏘아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에게는 어렵도 없다고요! 하지만 내 영혼에 정좌 병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계시지 않은 영혼의 의사님께 내 몸을 맡기겠소! 그분께서는 마음이 내키면 고쳐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분께서는 정의와 예지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나를 처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간섭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께 환자와 하나님 사이에 나서려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SL 94)

비록 한 차례의 욕정에 이끌려 죄를 범하고 성격과 지위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죄를

밝히지 못한 채 전전공공하며 끌려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영적 판단력에 따라 모든 판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딘스데일의 모습은 전적 타락과 예정설, 그리고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칼빈주의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성실한 성직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그는 비록 끝내 “자신을 정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에 대한 심한 육체적 고문과 금식 및 철야 등의 고행을 통해서 “내면 성찰”(SL 100)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참회하고 회개를 하고자 했던 딘스데일의 이러한 행동들은 비록 “헛된 회개”(SL 102)나 “애매한 고백”(SL 99)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남달리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했”(SL 99)던 목사의 성품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가 겪는 모든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고양을 위한 그의 전략이 아니라 영과 육의 고통을 통한 회개의 몸짓이며 호소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딘스데일 목사를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게 한 오직 한 가지 진실은 그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 들어 있는 고뇌,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거짓 없는 표정이었다”(SL 100)라는 서술자의 설명대로 그의 견딜 수 없는 영혼과 육신의 고통의 흔적이 그의 전 자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부와 내부의 적과의 싸움을 마친 그는 마침내 밤샘을 하던 어느 날 딘스데일은 혼자 처형대에 올라가 어두운 밤하늘에 대고 참회의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마침 윈스립 총독의 임종을 보고 귀가하던 월슨 목사와 헤스터와 펄을 만나게 되고, 세 사람은 함께 처형대 위에 선다. 그리고 딘스데일은 “마치 그의 반쯤 마비된 신체 기관 속에 어미와 아이가 그들의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만 같”(SL 105)은 느낌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그들은 이상하게도 대낮같이 밝은 이상하고도 장엄한 광채에 휩싸여 서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온갖 비밀을 들추어내는 빛이요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한데 뭉치게 해 줄 새벽과 같았다”(105-6)고 묘사하며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세 사람의 만남에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전술한 숲속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도피의 결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러한 딘스데일의 영적 싸움에서의 힘들고 희미한 승리감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 장면에서 헤스터가 내민 도움의 손길은 딘스데일이 절대로 맛보아서는 안될 “사과, 그것도 그 핵심까지 물어뜯긴 사과(선악과)”(Donohue 67)인 셈이다. 왜냐하면 숲속에서의 만남을 마친 딘스데일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길 적마다 그는 무의식적이면서도 의식적으로 어떤 이상하고 난폭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SL 147)히게 되고, 꿈같은 행복의 유혹을 받아 생전 처음으로 끔찍스러운 죄악의 손아귀에 자진해서 몸을 내맡긴 목사의 육체와 정신의 조직 속으로 죄악의 독소가 빠르게 전염되어 경멸이며 냉혹함이며 까닭 없는 악의며 근거 없이 죄를 저지르려는 욕망이며 선하고 성스러운 것이라면 무척 대고 조롱하려는 충동이 모두 깨어나 한편으로는 그를 놀라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유혹하게 되기 때문이다.(SL 150) 헤스터의 유혹에 다시 빠진 딘스데일이 “나는 내 자신을 악마에게 판 것인가”라고 자문하자 서술자가 “불쌍한 목사!”라고 응답하는 이 장면에 대하여 도노휴는 “호손의 위대한 장면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호손과 그의 인물들 사이의 미적 거리의 단절은 완성”(44)되기 때문이다.

그 후 뉴잉글랜드의 선거축일에 기념설교를 마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후 함께 떠나기로 했던 두 사람의 계획은 이 사실을 알아차린 칠링워스가 동승의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무산된 위기에 처하

게 된다.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덤스테일은 어느 때보다도 힘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선거축일 행렬에 참여하지만, “자기 앞에 다가오는 때 이른 죽음을 미리 예감하고,” “설교하는 동안 줄곧 곧 숨을 거두려는 사람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비탄의 소리로부터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어딘지 깊고도 애뜻한 비애의 저음”(SL 168)으로 설교를 마치게 된다.

최고의 설교를 마친 후, 죽음의 때를 알게 된 덤스테일은 칠링워스의 제지를 뿌리치고 자신의 가족들을 처형대 위로 불러 올려서 모든 주민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 먼저 그는 자신 고백을 제지하는 칠링워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당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악마의 힘을 빌려서” 노인의 제지를 막고 있는 자신에게 “힘을 주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에 따라 순종”(SL 170-71)하여 자신이 처형대에 오르는 것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한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쓰러진 덤스테일의 얼굴에서 “승리의 붉은 빛”(SL 172)떠오르게 된 이유는 모든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돌리고, 저주의 책임을 자신의 죄로 돌리는 그의 진정한 고백이 자신에게 복수의 칼을 갖고 있던 칠링워스를 무릎 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기 전에 “이곳과 영국에 있는 꽤 많은 재산을 헤스터 프린의 어린 딸 펠에게 물려주”(SL 176)게 하였으며, 괴팍한 성격의 펠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불에 입맞춤을 하게 함으로써, 엄마의 고뇌의 사자의 역할을 끝내고 세상과 화해하는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하게 하기 때문이다.

“쉿, 헤스터, 조용히!” 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는 올법을 어겼소! 그 죄는 이처럼 무섭게 드러났소! 당신은 이것만 생각하구려. 두렵소! 나는 두렵소!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서로의 영혼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을 때, 어찌면 그때부터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하고도 순결한 결합을 이루기를 바라는 건 부질없는 일이었을 거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그분은 무엇보다도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자비심을 베풀어 주셨소. 이 불타는 가책을 내 가슴에 달고 다니게 하심으로 말이요! 저 음침하고 무서운 노인을 보내어 그 가책을 언제나 이글이글 불타게 하심으로 말이요! 또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군중 앞에서 수치스러우나마 승리에 빛나는 죽음을 맞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심을 나타내셨소! 아마 이런 고통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빠져들었다면 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라! 그럼 잘 있구려!(173)

덤스테일의 유언에 대하여 데이빗슨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신만의 우주를 형성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확신의 승리였다”(SL 91)고 논평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첫째 성경적인 죄에 대한 세속적, 인본주의적 해결을 시도한 헤스터의 방법에 대한 호손의 반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 8: 28)는 말씀처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분의 때까지 성실하게 기다려온 사람에게 베풀어진 승리의 메시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작가와 17세기 청교도 사회의 배경 사이의 간극이 완전히 사라져서 작가의 청교도적 신앙에 대한 소망이 극대화 된 마지막 “결말”의 장에서 화자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정의라도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무한히 순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란 하나같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위대하고도 가슴 아픈 교훈을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 주려고 했다”(SL 174)고 전하고 있다.

또한 헤스터의 여생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여성들의 위로자가 되어서 헌신적인 수고를 계속한 결과로 “주홍 글자는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를 받는 낙인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두렵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어떤 상징이 되었다”(SL 177)고는 하였으나, 「세관」에 나타난 서술자의 상상대로 가끔 “남의 일에 참견 잘하고 귀찮은 존재”(SL 25)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고, 더욱이 죽은 후에는 그토록 사랑하던 뎀스테일과 합장되지 못하고 “두 사람의 유해가 서로 합쳐질 권리가 없다는 듯”(SL 178) 따로 매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 V. 나가는 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에 걸쳐 진행된 유럽의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하나님과 체결된 사회언약에 입각해 있고,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사회 전체의 순결을 위하여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원종천 65)고 믿고서 과도하리만치 엄격한 생활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 세기 가량 지난 후, 그 엄혹하기 그지없었던 청교도의 직계 후손으로서 전혀 새로운 시대적 사조와 가치관을 경험한 호손은 다수의 단편, 장편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조상들의 종교와 사회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평가의 대부분은 과거 조상들의 행적에 대한 아이러니컬한 의문의 제기와 반성이었다.

그러한 평가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설 『주홍글자』는 1850년 첫 출판 이래, 현재와 과거, 현실과 공상, 그리고 작품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개입시켜 독자와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최종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서술자의 다양한 태도 등의 독특한 요소들로 인하여 ‘모호성’의 이름으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이끌어온 미국 소설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는 청교도주의에 대한 열망이 낭만주의적 성격을 지닌 초절주의에 의해 대체된 19세기에 사실주의적 배경에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초자연적인 요소가 가미된 소위 ‘로맨스’라는 미국 소설 특유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되었고, 그러한 형식을 바탕으로 2세기 전 뉴잉글랜드에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독특한 이력 덕택에 수많은 사조와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그 대부분의 초점은 청교도주의라는 전체주의적 질서를 온 몸으로 맞서 싸워 “도덕적 승리”(카울 15)를 거둔 여자 주인공 헤스터 프린에게 맞춰져 있었고,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 해석의 헤게모니에 밀린 청교도 사회의 유망한 젊은 목사인 아서 뎀스테일은 종교의 그늘에 숨은 유약한 비겁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위선자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기독교학문의 연구자로서 이 작품을 재독하고, 여러 연구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해석에 덧붙여서, 비극적인 주인공인 아서 뎀스테일 목사의 행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시기와 사회 환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19세기 저자와 17세기의 사회, 과거와 현재 및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는 ‘로맨스’의 장르적 특성, 그리고 폐쇄된 결말보다는 열린 결말을 가능하게 하는 화자의 내러티브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의 ‘모호성’에 기대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물론 전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의 고전주의적 질서라 할 수 있는 뉴잉글랜드의 엄격한 '청교도주의'의 전체성과 낭만주의적 질서의 영향으로 생긴 '초절주의'의 개별성에 대하여 각각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던 작가의 서술 과정을 추적해 본 결과 애초에 청교도주의의 엄격한 질서를 비판하면서 그 희생양이 된 개인을 옹호하던 서술의 방식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징벌과 여러 형태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 온 한 목사의 희생을 통한 세계의 변화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준 작품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한 편으로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신대륙은 제 2의 에덴동산이라기보다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타락한 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가 그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듯이, 이 작품에서도 광야의 1세대인 아서 덤스테일과 헤스터 프린 그리고 로저 칠링워스가 상징하는 1세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비록 연약한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그 약속이 제 2세대인 펠에게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미명의 영향을 받은 자의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자칫 그 진정한 의미가 희석될 수 있는 신앙적 원리를 분명하게 확인하여 굳게 붙잡고,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다양한 분야를 통해 세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 있으며, 이 역시 기독교학문의 연구자로서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한 길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Brodhead, Richard. "New and Old Tales: *The Scarlet Letter*." Bloom, Harold, ed. *Modern Critical Views: Nathaniel Hawthorne*. New York: Chelsea House, 1986. pp. 153-178
- Chase, Richard.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57.
- Davidson, Edward H. "Dimsdale's Fall," Gerber C. John,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The Scarlet Letter*. Englewood Cliffs, 1968. 82-92
- Donohue, Agnes McNeill. *Hawthorne: Calvin's Ironic Stepchild*.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5.
- Gerber C. John,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The Scarlet Letter*. Englewood Cliffs, 1968.
- Horton R. W. & H. W. Edwards.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 New Jersey: Prentice Hall, 1974.
-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An authoritative Text, Essays in Criticism, and Scholarship*, third edition, ed. Seymour Gross, et al.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88.
- Kaul, A. N. "*The Scarlet Letter* and Puritan Ethics" in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The Scarlet Letter*.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9-20.
- Ruland, Richard and Malcolm Bradbury. *From Puritanism to Postmodernism: A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1.
- Ryskamp, Charles. "The New England Source of *The Scarlet Letter*" in John Gerber,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The Scarlet Letter*. Englewood Cliffs, 1968.
- Spiller, E. Robert.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An Essay in Historical Criticism*.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 김지원. 「『주홍글자』의 개방성: 서술자를 통한 작가의 간섭」. 한국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 제 45권 1호. PP. 137-55. (1999)
- 박경운. 「호손의 『주홍글씨』: 헤스터의 성과 청교도 사회의 권력」. 현대영미어문학회. 『영어영문학』 제 15권 2호』 (1997). 443-81.
- 박병주. 「『주홍글자』에 나타난 서술방식」. 호손과 미국소설학회. 『호손과 미국소설연구』 11권 1호. 2004. pp. 57-81.
- 원종천.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언약 사상」. 『기독교사상』. 1997년 12월호(통권 468호), pp.55-69.
- 최웅, 김봉중. 『미국의 역사』.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1987.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